

국내 진출 20년 벤츠, 고급화·전동화 ‘가속 페달’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 ‘더 뉴 EQE SUV’ 등 올해 신차 2종·완전변경 모델 2종 등 12종 출시

올해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은 메르세데스-벤츠가 12종의 신차를 선보이며 고급화와 전동화로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은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수입차 최초로 단일 브랜드 연간 판매 8만대를 돌파하며, 한국 진출 후 최대 판매인 8만0976대를 기록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GLS 판매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S-클래스 판매가 13% 증가했다. 2017년부터 연간 베스트셀링 모델 1위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10세대 E-클래스는 수입차 단일 모델 최초로 작년 누적 판매 20만대를 돌파, EQ 브랜드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약 3.7배 성장을 이뤘다.

이에 따라 벤츠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럭셔리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올해 역시 럭셔리와 전동화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벤츠코리아는 올해 2종의 신차와 2종의 완전변경 모델, 그리고 8종의 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한 총 12개의 차량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달 공식 출시한 ‘더 뉴 EQS SUV’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로, 럭셔리함과 안전 전동화 기술이 담겨 있다. ‘더 뉴 EQS SUV’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적용한 첫 번째 럭셔리 전기 SUV로,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공간 및 역동적인 비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QE SUV’는

가장 완벽한 비율의 차체를 자랑하는 모델이다.

‘더 뉴 EQE SUV’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로서 실용적인 실내 공간과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춰, 전기 SUV를 찾는 고객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벤츠를 대표하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도 상반기에 선보인다.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Mercedes-AMG)’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차량이다.

글로벌 베스트셀링 중형 SUV인 GLC의 3세대 모델 ‘더 뉴 GLC’도 연내 출시된다.

또 총 8대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콤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GLA’ ▲넓직한 실내공간과 다양한 편의장치를 탑재한 실용적인 패밀리 SUV 모델 ‘GLB’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던 럭셔리 SUV의 진수 ‘GLE’ 및 ‘GLE 쿠페’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 역동적인 주행성능, 안전성과 편안함을 갖춘 플래그십 SUV 모델 ‘GLS’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다이내믹한 주행을 결합한 콤팩트 쿠페 세단 ‘CLA’ ▲진보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콤팩트 모델 ‘A-클래스’ 해치백 및 세단을 올해 선보인다.

이외 최상위 에디션 모델인 ‘마이바흐 비질 아블로’ 에디션과 ‘오프 부아튀르’ 에디션을 연내 출시한다.

이밖에 벤츠코리아는 한국사회와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4년 국내 공식 출범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1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올해 고급화와 전동화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벤츠의 전기 SUV ‘더 뉴 EQS SUV’ 국내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더 뉴 EQS 580 4매틱(MATIC) SUV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지속가능성 주제의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를 출범했다. 지난해 어린이 눈높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에는 한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 사회공헌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43개 사회

복지기관에 총 44대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기증해 왔는데, 올해에는 순수 전기차인 메르세데스-벤츠 EQ 차량을 총 20대 기부해 주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을 꿈꾸는 회사의 전략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STARTUP AUTOBAHN Korea)’를 총 세 차례 성공적으로 진행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협력 기업 및 기관 파트너들과 더욱 다양한 협업 채널을 구축해 더 많은 유망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 동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셔클’ 앱으로 택시도 이용하세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협약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택시업계와 손잡았다.

현대차는 6일 현대차 TaaS본부 송창현 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양측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택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이 셔클 앱 하나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 통합 요금제 등 택시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택시업계의 신규 서비스 런칭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654개에 달하는 전국의 법인 택시업체들이 셔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DRT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과 전국 택시운송사업자가 함께 통합 MaaS 플랫폼을 완성시켜 나



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전통적인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나아가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지난 2021년 선보인 국내 첫 인공 지능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서비스 셔클은 공유 킥보드, 자율주행 로보셔플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DRT 서비스에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적용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

계성을 높였다.

셔클 서비스는 현재 세종시, 파주시 등에서 운영 중이며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향후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까지 포함한 셔클을 대중교통 및 광역 교통과 연계되는 MaaS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 미래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

정부, 315억 투입...전년비 40.6% 급증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미래차 인력양성 예산은 지난해(224억원) 대비 40.6% 급증한 것이다.

미래차 연구·개발(4074억원)과 인프라(605억원)에 예산이 작년보다 각각 12.9%, 17.9% 늘어 난 것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인력 양성 사업은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해 20개 대학교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의 보급 확산에 맞춰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인력 2080명을 양성한다.

또 산업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총 20개 대학에 960명의 학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형 할부’로 신차 구입 부담없게

기아, 3개월 단위로 금리 결정...‘커스텀 할부’도 출시

기아는 ‘변동금리형 할부’와 ‘커스텀 할부’ 등 다양한 신차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는 이번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고객이 상황에 맞는 적합한 구매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동금리형 할부’는 3개월 단위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금리 변동을 반영해 할부 금리가 결정되는 60개월 할부 단일 상품이다. 추후 금리 인하시 고객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에 현대카드의 M계열 카드 M 할부를 이용해 기아 차량 구매시 최초 7.3% 금리를 적용 받으며, 3개월 이후에는 직전 1개월의 CD 평균 금리와 연동되어 3개월 주기로 조정되는 할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아의 전체 차종에 적용 가능하다. 고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 고객 부담을 낮췄다.

기아는 차량 구매시 고객이 자금 상황에 맞게 ▲할부 기간 ▲유예율 ▲선수율 등 구매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스텀 할부’도 실시한다.

‘커스텀 할부’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카드의 M계열 카드 선수를 10% 이상 결제를 조건으로 한다.

고객은 24·36·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 5%에서 최대 55% 범위 내에서 유예율을 정할 수 있다. 할부 기간이 48개월인 경우 유예율은 최대 45%까지 가능하다.

선수율은 10%·30%·50% 이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간별로 7.2%·7.0%·6.8%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테슬라 신차 값 또 내렸다...최대 14%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2개월 내리 신차 가격을 내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모델 3 기본 트림 가격을 종전 6434만원에서 6.8% 내린 5999만원으로, 모델3 퍼포먼스는 8817만원에서 14.3% 인하한 7559만원으로 변경 공지했다.

모델Y 롱레인지는 8499만원에서 7789만원으로 8.4%, 모델Y 퍼포먼스는 9473만원에서 8269만원으로 12.7% 각각 가격을 내렸다.

테슬라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최대 20%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앞서 지난 1월 국내 판매 모델 가격을 일부 인하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가격 인하는 이 같은 배경과 더불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기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 57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는 50%를 지원받는다.

모델Y 퍼포먼스의 경우 종전 가격은 보조금 지원 상한선(8500만원)을 웃돌았으나 이번 가격 인하로 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내 판매되는 테슬라 전 트림이 보조금 50% 지원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26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발렌타인 스페셜 프로모션’

28일까지 시승·초콜릿 증정

이탈리안 럭셔리 마세라티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발렌타인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국 8개 전시장에서는 시승 및 상

담고객을 대상으로 고급스러운 마세라티 초콜릿과 전 차종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또 109년 전통의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로 출시된 럭셔리 SUV ‘그레칼레’와 함께하는 포토이벤트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